

인공지능 시대 돈 모으지 말고 독서자본 모으라



독서자본
이상민 지음

세계 최고 바둑 고수인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증폭시켰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고 나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로봇은 점차 단순 노동뿐 아니라 소위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의 일까지 대체하고 있다.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기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변호사 없이 법률 사건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처음 ATM 기계가 나왔을 때 어떤 이들은 '기계가 어떻게 복잡한 은행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겠어'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ATM기계에 많은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빠르게 전개될 인공지능 시대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자본은 돈도, 부동산도, 기술도 아닌 '독서'라는 주장이 있다. 대안교육 공간 '도산학교' 운영자이자 전업작가인 이상민 씨가 펴낸 '독서 자본'은 미래를 대비하고 나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다. 서른 살 이전에 3000권의 책

을 읽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창의성, 유연함, 넓은 시야, 지적, 지속 가능성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 인공지능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딥 러닝'이다. 그러나 이 딥러닝은 인간의 뇌가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본 따서 만든 기술이다. 저자는 우리의 뇌에서는 지금도 이 딥러닝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독서는 이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촉매제라고 본다. 저자는 독서 자본 프로젝트 3단계로 제시한다. 1000권 미만은 읽은 초심자 단계, 1000~3000권 정도를 읽은 중급자 단계, 마지막으로 3000권 이상을 읽은 고수 단계가 그것이다. 각 단계별로 기본 마인드, 책을 읽는 방법, 읽은 후의 활동을 안내하면서 그러나 숫자에 기가 눌리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나와 세상의 큰 틀을 깨닫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지력을 키우는 독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생각의 영토가 좁은 개인은 살아온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고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한다. 지금은 현재의 삶에 고착되지 않고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그 유연성과 창의성, 또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지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지 말고, 독서 자본을 모으라고 하는 이유다." <서울문화사·1만2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속가능 사회 위해 혁신을 디자인하라”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에치오 만치니 지음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고, 꾸미는 보편적인 디자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은 개인의 디자인 능력을 무한히 확장시킨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사회 혁신은 소수의 전문 디자이너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열린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개인의 재능보다 공동체가 발휘하는 지혜가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줄 수 있다. 일대면 이런 것들이다. 도시민과 시골 농부를 연결해 안전한 먹거리와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 정신환자를 병원에 가두는 관행에서 벗어나 그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혁신을 준비하고, 실행 유지하는 것이 모두가 디자인이 되는 시대의 디자인이다. 지난 세기 인류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기술 발전과 급속한 산업화는 지



21세기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사회구성원이 함께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대다. <안그라픽스 제공>

구 환경과 지역 공동체의 파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인류는 지구 자원의 한계에 맞닥뜨렸고, 소비문화의 확산은 그 한계를 앞당기고 있다. 인류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다. 자원과 환경이 한계지에 다다랐다는 사실에 눈감은 채 무한정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찾아나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위기의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세계

를 만들기 위한 사회혁신 디자인 개념을 소개하는 이가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공과대학 디자인과 에치오 만치니 교수는 사회 혁신 디자인 담론을 제시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온 세계적 석학이다. 그가 이번엔 펴낸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는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촉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형태의 협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 디자인과 전문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어떻

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책에는 중국의 공동체 지원 농업에서부터 캐나다 의료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까지, 인도의 양방향 스토리텔링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도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과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호스팅스튜디오, 이웃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꾀한 밀라노의 협동주거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이 사례들은 모두 전문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협동적 디자인을 지원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새로운 디자인은 '작고Small 지역적이며Local 열린 있고Open 연결된 Connected' 특성을 지닌다. 이를 SLOC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이는 많은 사회 주체가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냈을 때 상정되는 비전이다. 작고 지역적인 디자인은 소규모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높여준다. 분산화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또한 폐쇄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디자인 양상이 향후 세계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저자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지역과 문화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확산시켜 세상의 변화를 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혁신 디자인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안그라픽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생역전 꿈꾸는 사내들의 우정·배신·성공 드라마



아편전쟁
이원태·김탁환 지음

부산 출신의 아편쟁이 아들 최장학, 벌교 출신 입담왕 송상현, 고성 출신 주먹 나용주. 저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인천으로 향하는 증기선에 오르는 세 사람은 동갑내기라는 이유만으로 친구가 된다. 증기선이 인천에 도착한 뒤, 그들은 인천 조계지에서 일본 회사 '대일 해운'의 하역 노동자 생활을 시작한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기회의 땅 인천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내들이 아편을 둘러싸고 벌이는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소설가 김탁환과 기획자 이원태가

결성한 창작집단 '유타'의 세 번째 장편 '아편전쟁'이 출간됐다. 소설은 '조선 누아르, 범죄의 기원', '조선 미술사'에 이은 무불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다. 무불(move)은 영화(move)와 소설(novel)을 합한 조어로 영화 같은 소설, 소설 같은 영화를 모토로 이야기의 변화무쌍을 지향한다. 출간 전에 영화 제작이 확정된 것들로만 꾸려지는 '원작소설' 시리즈이자 매체 간 장벽을 허무는 원천 소스, 즉 콘텐츠로 이루어지는 시리즈이기도 하다. '아편전쟁'의 중심축을 이루는 캐릭터는 최장학과 나용주다. 이들은 대결적 구도에 있지만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나용주는 밀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이고 최장학은 카멜레온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인물이다. <민음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융복합' 인학문 지평 연 佛 역사학 저장들의 삶



20세기 프랑스...
필립 데일리더 공저

역사란 무엇인가?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알려면 먼저 역사가를 알아야 하고, 역사가를 알려면 우선 그가 살았던 사회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기가 사는 시대에서 얻은 통찰력이 과거에 대한 시야를 밝혀주는 바로 그때 역사가는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다. 역사와 역사가, 역사가와 그가 사는 시대의 관련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20세기가 역사학의 세기였다면 전성

기 서양 역사학의 한복판에는 프랑스 역사가들이 있었다. 윌리엄앤메리칼리지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필립 데일리더와 코스타칼로리아나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필립 윌런이 펴낸 '20세기 프랑스 역사가들'은 새로운 역사학의 기쁨을 다졌던 학자들을 조명한다. 20세기에 접어들며 프랑스 역사가들은 마술레, 쿨랑주 같은 앞 세대 역사가들을 뛰어넘으며 토크빌, 드라블라슈, 뒤르켐 같은 대가들의 문제의식을 확대해 역사학을 학문의 제왕 자리에 올려놓았다. 프랑스 역사학은 일찍부터 인류학이나 지리학을 비롯한 인접 사회과학과 뒤섞이면서 '융복합' 학문의 지위로 역사학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삼천리·5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철학자이자 인문학자 박이문의 인생 잠언집



우리시대 인문학...
박이문 지음

"안타깝게도 사람은 항상 최후의 순간이 되어서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 반성해 보는 일은 앞으로의 보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야 깨닫게 된다." 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박이문의 인생 잠언집 '우리시대 인문학의 거장 박이문 아포리즘 1·2'은 아름다운 감성과

명민한 지혜로 가득 차 있다. 평생에 걸친 진리탐구의 여정을 보낸 저자는 삶과 인연의 소중한 가치를 감동의 메시지로 들려준다. 무엇보다 저자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아름다운 선택을 하도록 독자들을 이끈다. 책에는 시의 풋풋함과 서정성 그리고 깊은 생의 철학이 담겨 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정과리 평론가는 추천사에서 "박이문의 투명성을 의미하는 기쁨은 매우 진기하고 희한한 것이다"면서 "무덤덤한, 때로는 진부한, 인생에서 문득 약동을 느끼는 경험을 맞이할 터이니, 즐거이 맞보시라"고 평한다. <미다스북스·각권 1만32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16 법성포 단보조제 천년의 어울림. 2016년 6월 9일(목) ~ 12일(일) 법성포 뉴타운 일원. 주최 (사)법성포단보조회. 후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영광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문화재단, 영광군수업. 홈페이지 http://bspdanoje.co.kr. 문의전화 061)356-4331 / 4334 / 4335.